

##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Theological Concepts of Young Children

김성원 (Sung-Won Kim)\*\*

####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a scale to measure the theological concepts of young children. The process for developing a scale was as follows: First, sub-factors were chosen and 59 preliminary corresponding question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irty-nine questions were extracted from eight experts through a content validity procedure. After conducting a preliminary survey with 25 young children using parental ratings to revise the wording of the questions, in the main survey, data from 421 young children were collected using the same method. After excluding data with a negligent manner, 406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Two-hundred seventy-seven copies were used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229 copies were used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rallel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JAMOVI 2.3, SPSS 22, and AMOS 22. After analyzing construct validity, including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and verifying reliability through Cronbach's  $\alpha$ , an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the final extracted factors and items are as follows: 12 questions for 'understanding God and Jesus', 6 questions for 'understanding salvation and a life of companionship', 4 questions for 'understanding good and evil', and 3 questions for 'understanding spiritual disciplines'. It is hoped that this scale will be a useful tool for research and ministries in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a data source for evaluating the faith of young children.

**Key words:** young children, theological concepts, scale development, scale validation

\* 2023년 8월 11일 접수, 9월 5일 최종수정, 9월 5일 게재 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산업교육학부 부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sungwon1331@gmail.com

## I. 서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은 신학이라 명명된다(서철원, 2018: 21). 조직신학자 Erickson(2013: 3)에 의하면, 신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이해하고 실재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a discipline of study that seeks to understand the God revealed in the Bible and to provide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reality)”라고 정의된다. 서철원(2018: 33-34)은 신학의 목적을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학을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심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 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지지한다고(Christian theology serves the Christian faith) 본 Härle(2012: 10)의 주장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신학의 분야 중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조직신학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전체적으로 통일된 체계로 제공하는 학문이다(이승구·강웅산 역/Van Til, 2009: 25). Erickson(2013: 121-1104)은 조직신학의 내용으로 하나님, 인간, 죄,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종말론을 제시하였다. 조직신학에서 파생된 신학적 개념은 성도의 현세와 내세에서의 영원한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eers, 1986). 구체적으로, 성경의 진리 체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경우 이단에 대한 최선의 방어가 되며(송지섭, 2022; 이승구·강웅산 역/Van Til, 2009: 33), 더 나아가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이승구·강웅산 역/Van Til, 2009: 33). 또한 교육학을 실천함에 있어서 성경에 기초한 계시, 신론, 예수님, 성령론, 인간과 죄, 구원, 교회론 등은 기독교교육학의 체계적인 신학을 제공하고 교육의 목적, 교사와 학습자 이해, 교육과정, 환경,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Estep Jr., Anthony & Allison, 2008: 2-3).

신학적 개념은 성인뿐 아니라 유아에게도 중요한데 그 이유는 신학적 개념이 미래 신앙적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유아가 신학적 개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때 그의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 언어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아기에는 신학적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등으로 명명하여 기독교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권기수, 2013). 인지적으로 획득하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개념, 교리교육의 내용이 이미 체화한 정서적이고 감각적인 영역의 영적 지형도와 조화를 이룰 때 유아의 신앙은 인지적, 정서적, 실천적 차원에서 통합되는 전인적 신앙으로 성장될 수 있다(주연수, 2019). 유아의 신앙 형성에 관하여 기독교교육 박사와 교회교육 전문가 18명을 면담한 연구에서 신학적 개념의 이해기 유아 신앙의 특징 중 하나로 도출되었다(김성원, 2020a). 이 연구에서 도출된 75개 서술문의 중요도를 5점 평정척도로 평가한 후속연구에서 4.70점 이상 높은

접수를 받은 15개의 서술문을 추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학적 개념 이해, 종교적 행위, 가정의 신앙교육, 교회의 신앙교육으로 유목화되었다(김성원, 2022).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개념은 유아기 신앙에서 중요도가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갖는 유아기 신학적 개념의 내용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들은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이경우와 이혜상(1988)은 유아를 위한 신학적 개념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 교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죄와 죄사함, 부활, 영생, 성경, 예배(기도, 헌금, 찬송)를 제시하였다. 예수님 개념의 내용에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다’ 등이 포함된다. 김성원(1999)은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하나님, 예수님, 기도, 교회, 성경, 죽음과 사후세계로 구성되었으며, 예수님에 관한 문항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등이었다. 권기수(2013)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개념 측정도구의 구성요인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기도, 예배, 창조, 믿음과 신앙생활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가 제안한 예수님 개념 문항에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OO의 죄(잘못)가 용서받았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니?’ 등이 포함된다. Beers(1986)는 4-5세 유아가 배워야 할 개념을 하나님, 예수님, 성경, 가정과 부모, 교회와 주일학교, 타인, 천사와 마지막 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안된 예수님 개념에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다(Jesus is now living in heaven)’,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Jesus is always with me)’, ‘예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하도록 도우실 수 있다(Jesus can help me do hard things)’ 등이 포함된다. McQuitty(2008)는 유아가 하나님, 예수님, 성경, 교회, 자신, 타인, 가족, 자연세계에 관한 기본적 태도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으로 학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녀가 제시한 예수님 개념에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다(Jesus performed miracles and healed the sick)’가 있다. 미국 침례교단 출판사인 Lifeway에서는 유아가 배워야 할 신학적 개념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경, 창조, 가족, 자신, 공동체와 세상을 제시하였다. 소개된 예수님 개념에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했다(People in the OLD TESTAMENT times told that Jesus would be born)’,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God sent Jesus to earth because He loves us)’,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Jesus wants people to love and to obey Him)’ 등이 포함된다.

유아기에 배울 신학적 개념의 내용에 대한 제안이 여러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를 측정할 는 연구는 주로 하나님 개념에 집중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김민정(2019)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영

유아가 인식하는 하나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rett, Richart와 Driesenga의 크래커 실험, Petrovich의 사진변별 실험, Petrovich의 자연기원반응 실험을 실시하였다. 크래커 실험에서 “크래커 상자에 돌 넣은 것을 엄마와 하나님이 아실까?”라는 질문에 “엄마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답한 경우에 1점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사진변별 실험에서는 인공물과 자연물 사진을 보여주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것을 구분한 경우 1점, 아닌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자연기원반응 실험에서는 식물, 동물, 하늘, 땅 등 자연물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것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을까?”라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 의해’, ‘모르는 존재에 의해’, ‘모르겠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왜 이것은 하나님/인간/모르는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을까?” 또는 “왜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까?”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변별할 경우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2-5세라고 밝힌 이 연구에서 자연기원반응 실험의 두 번째 질문, 이것이 OO에 의해 만들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이 2-3세에게 발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사진변별 실험에서처럼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인공물과 자연물 창조를 구분하는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측정되는 것의 신학적 건전성에 의문이 들었다.

송영란(2005)은 Fowler와 Goldman이 사용한 면접문항을 참고하여 하나님, 예수님, 하늘나라, 기도, 성경, 용서 등에 관한 28개의 질문을 통해 유아의 신앙 발달 수준을 파악하였다. 유아가 무응답하거나 ‘모른다’고 하면 0점을, 전조작적 종교적 사고는 1점, 구체적 조작적 종교적 사고를 대답한 경우는 2점을 배당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니?”에 대한 답으로 ‘전지전능하신 분’, ‘어느 곳이나 계신 분’이라고 반응할 경우 2점, ‘착하신 분’, ‘좋은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으로 답할 경우 1점, ‘몰라요’나 무응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니?”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적들(소경, 병자들을 고치심)’은 2점, ‘우리를 도와주심’은 1점, ‘몰라요’나 무응답은 0점으로 처리하였다. 첫 번째 문항의 경우 질문과 예시 답변 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두 문항의 예시 답변에서 전조작적 사고와 구체적 조작적 사고 구분의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오영희와 정미(2009)의 연구 그리고 이해정과 김미경(2010)의 연구에서도 송영란이 개발한 자료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유아의 신앙 발달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평정자가 유아의 반응을 전조작기적 종교적 사고와 구체적 조작기적 종교적 사고로 구분하여 평정하는 방법은 국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Goldman의 종교적 사고발달 단계를 따르는 것인데, 5-7세 유아들은 직관적 종교기에 해당하며 비조직적이고 단편적, 자기중심적, 단순 및 비종합적, 그리고 관계가 없는 개념을 연결하는 성향인 변환적 특징이 있다. 8세에 접어들면서 시작되는 구체적 조작기에는 귀납적 논리와 인과관계 인

식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사고가 구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경험, 감각적 자료에 머무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양금희, 2011: 125-126, 128-130). 전술한 바와 같이 점수 부여의 기준으로 제시된 예에서는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의 모호함과 개방형 답 중에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의 처리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고은님(2008)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유아의 신앙을 측정하기 위해 천지창조,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 구원,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15개 문항을 선정하여 그림과 함께 사용하였다. 유아의 답변을 미분화 사고, 전개념적 사고, 직관적 사고, 구체적 사고로 구분하였던 Krych의 방법을 따라 0-3점을 부여하였다. 학술지로 발표된 후속연구에(고은님, 2010) 소개된 점수 부여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라는 질문에 ‘몰라요’나 무응답(미분화 사고)은 0점, ‘(그림을 보며) 토끼, 사자’(전개념적 사고)는 1점, ‘찰흙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똑똑똑 만들었어요’(직관적 사고)는 2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구체적 사고)는 3점. 송영란이 시도했던 점수 부여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준으로 유아의 사고력과 신앙을 판단하는 방법은 신학적, 논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국내에서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한 사례로는 권기수(2013)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그는 유아의 기독교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하나님 13문항, 예수님 5문항, 성령님 3문항, 기도 6문항, 예배 3문항, 창조 4문항, 믿음과 신앙생활 5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런데 문항 중 ‘1. OO는 하나님을 믿나요?’, ‘22. OO는 기도를 하고 있니?’, ‘26. 기도할 때 친구나 가족, 교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 ‘27. 집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니?’, ‘29. 주일교회학교 예배에 참석하니?’ 등이 유아의 기독교 개념 측정에 적절한 문항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또한 ‘5. 하나님은 OO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계시까?’, ‘10. 하나님이 OO를 사랑하시는 것을 못 느끼니?’, ‘19.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21.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25. 하나님께서 OO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니?’, ‘38.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니?’ 문항의 발달적, 신학적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전문가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사와 공인타당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긴 하나, 측정도구 개발에 요구되는 요인분석이라는 과학적 검증 과정이 생략된 점은 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유아기 신앙 발달 이론을 제시함에 있어 전문가들이 하나님, 예수님, 인간, 죄와 구원, 교회, 성경 등 신학적 개념의 다양한 측면을 제안하였으나, 이와 같은 내용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는 주로 하나님 개념에 집중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는 Goldman과 Fowler의 이론에 기초하여 유아와 면담 또는 설문한 반응을 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거나 권기수(2013)의 기독교 신념 측정도구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은 이미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수

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알아야 하는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적 개념을 측정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의 구성 및 하위요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421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완성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406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 전공자나 측정도구 개발자들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같은 자료로 실행함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별개의 자료로 실행할 것을 추천한다(Fokkema & Greiff, 2017; Lorenzo-Seva, 2022). 특별히 Lorenzo-Seva는 카이저의 법칙(Kaiser's rule)을 사용한 솔로몬(SOLOMON) 방법으로 자료를 분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을 수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에 277부를, 확인적 요인분석에 229부를 사용하였고, 설문자료의 양이 충분치 않은 이유로 100부는 두 가지 요인분석에 중복으로 사용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남아가 123명, 여아가 154명이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 남아가 107명, 여아가 122명이었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Table 1에 소개하였다.

Table 1. 연구대상 배경 (N= 277, 229)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ategory		N	%	Category		N	%
Gender	Boys	123	44.40	Gender	Boys	107	46.72
	Girls	154	55.60		Girls	122	53.28
Month	39-47 months	0	0	Month	39-47 months	6	2.62
	48-59 months	78	28.16		48-59 months	62	27.07
	60-71 months	95	34.30		60-71 months	75	32.75
	72-83 months	104	37.55		72-83 months	86	37.55

## 2. 연구 절차

유아를 위한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의 절차는 선행연구 분석을 기초로 한 구성요인 선택 및 그에 해당하는 예비문항 개발, 내용타당도 검사, 예비 조사, 본 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순이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구성요인 추출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은 구성요인 결정 및 그에 해당하는 예비문항 작성을 위해 해당 주제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고은님, 2008; 권기수, 2013; 김성원, 2020b; 이경우·이혜상, 1988: 149-156; Anthony, 2001; Beers, 1986; Cunningham, 1992; Life-way; Tamminen, 1992: 358-361; Trent, Osborne, & Bruner, 2000: 119-120)를 분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연구자들이 유아기에 배워야 할 신학적 개념의 구성요인 및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제안을 하나,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분석, 종합하여 신학적 개념으로 빈번하게 제시되었던 하나님, 예수님, 인간, 성경, 교회, 사후세계/구원, 기타를 구성요인으로 선정하고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교리에 대한 유아의 이해와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 (2) 문항 개발 및 내용타당도 검증

선행연구의 내용 및 연구자의 지식 및 경험을 반영하여 하나님, 예수님, 인간, 성경, 교회 사후세계/구원 등에 해당하는 예비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비문항은 하나님 21문항, 예수님 9문항, 인간 6문항, 성경 3문항, 교회 4문항, 사후세계/구원 7문항, 기타 9문항으로 총 59문항이었다. 기타 문항의 예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가르칠 부모님을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등이었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기독교교육 박사 5명과 유아교육 박사로서 신학대학 교수, 교회 부설 유치원 원장, 선교사로서 기독교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3인으로부터 2020년 11월 9일부터 15일 사이에 평가를 받았다.

### (3) 예비 조사 및 본 조사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사를 통해 추출 및 수정·보완된 문항으로 2020년 11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2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과정에서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평정하기에 어렵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하나님은 죄에 대해 벌하신다’를 ‘하나님은 죄

를 미워하신다'로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다.'를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로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2023년 4월 17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및 1차 본 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COVID-19로 인해 주일학교 참석이나 유아교육기관 등원이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어서 부모가 각 문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1점-아니다, 2점-아닌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그렇다) 평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회수된 421부 중 중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응답지를 제외하고 40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에는 277부,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229부를 사용함으로 100부가 중복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JAMOVI 2.3, SPSS 22.0,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우선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평행선 분석(parall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측 요인분석을 요인추출 방법으로, 직접 오블리민을 요인회전 방법으로 선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표준화계수,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 값을 구하여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을 살펴보았다.

## III. 연구 결과

### 1. 측정도구의 구성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의 예비문항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하나님, 예수님, 인간, 성경, 교회, 사후세계/구원, 기타에 해당하는 59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기독교 교육 박사 5인과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기독교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아교육 박사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 점수가 높은 37문항을 추출하고 2문항을 추가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와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전문가에 의해 추가된 문항이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위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



름을 알고 계신다; 모든 사람을 지켜보는 일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내가 캄캄한 곳에 숨으면 보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만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벌하신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 우리처럼 자라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특별하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 지옥은 실제로 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가르칠 부모님을 주셨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거나 때를 쓰는 것은 죄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예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또한 평정 점수는 높으나 표현이 어색하다고 평가된 5문항을 수정하였는데, 그 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부자나 가난한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신다’로,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를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를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로 수정함 등이다. 39문항으로 설문한 자료로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12문항,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 6문항, ‘선과 악에 대한 이해’ 4문항,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 3문항, 총 25문항을 최종 요인과 문항으로 결정하였다.

## 2. 측정도구의 타당도

### (1)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하기에 앞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결과를 살펴본 결과, KMO 값이 .95으로 1에 가깝고, Bartlett의 검정치는 7226.92(df=300,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Jamovi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평행선 분석을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할 자료의 하위 요인이 4개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함을 확인 후 주축 요인추출을 추출 방법으로, 직접 오블리민을 회전 방법으로 선택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 .40 미만과 교차부하 문항을 삭제하여 전체 변량 70.87%을 설명하는 4요인 25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결과의 네 번째 요인의 아이겐 값은 기준치인 1을 초과하지 못함에도, 즉 Kaiser 법칙에 위반됨에도 결과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 근거는 Kaiser 법칙의 한계를 제시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체 방법으로 평행선 분석을 제시

한 선행연구(서원진 외, 2018: 180)에서 발견된다. 연구자들은 평행선 분석과 스크리도표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하였다. 이러한 절차와 원리를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3.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4.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 12. 하나님도 늙고 병들 수 있다; 18.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21. 성경은 사람들에게 구원받는(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22. 착한 사람은 죄가 없다; 23.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27.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창조물, 사람, 우리나라)을 돌볼 것을 원하신다; 28. 하나님은 잘못(죄)에 대해 누우치면 용서하신다; 32.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34.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35.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진짜)이다; 37.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소중하다; 38. 착한 일을 하면 천국(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60.51%의 설명력을 갖는 1요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명명하였으며,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4.95%의 설명력을 보이는 2요인은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로 명명하였다.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3.08%를 설명하는 3요인은 ‘선과 악에 대한 이해’로 명명하였고, 마지막으로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2.33%의 설명력을 갖는 4요인은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로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Table 2. 탐색적 요인분석

Factor	Item	Factor				Communality
		1	2	3	4	
Understanding God & Jesus	6. God can heal a sick person.	.78	-.07	.24	.24	.77
	2. God keeps his promises.	.76	-.09	.02	.01	.66
	11. God is good and loving.	.74	.08	.01	-.19	.70
	8. A church is a place to praise and worship God.	.72	-.17	-.11	-.12	.68
	39. God wants all people (the rich and poor, people of all colors) to believe in Jesus.	.71	-.19	-.08	-.11	.71
	5. Children of God should lov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63	.01	.23	-.11	.74
	25. God made the mountains and the sea.	.58	-.29	.01	-.12	.72
	13. Jesus helped the poor and needy.	.57	.27	.17	-.23	.52
	7.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56	-.10	.13	-.22	.74
	26. The church is a place where people who love God gather.	.51	-.03	.09	-.31	.65
	24. Jesus does miracles (healing illnesses, preventing accidents).	.50	-.20	.36	.09	.76
	31. God sent Jesus to forgive everyone's sins.	.43	-.22	.30	-.03	.70

	1. God is not visible, but He is real.	.34	-.64	.03	.04	.77
	19. Someday, Jesus will come back to Earth.	.04	-.60	.29	-.18	.82
Understanding salvation & companionship	30. God is always with me, even when I am in the kindergarten or child-care center.	-.07	-.58	.27	-.10	.59
	29. Jesus died on the cross and came alive again.	.35	-.56	.11	-.00	.77
	20. You can go to heaven if you believe in Jesus.	.15	-.53	.19	-.21	.74
	16. Jesus can help me.	.11	-.46	.20	-.34	.75
Understanding good & evil	9. God hates sin.	.00	-.04	.75	.03	.58
	33. When we choose to sin, Jesus is sad.	.11	-.13	.74	.01	.80
	36. Sin is doing what I want and not caring what God thinks about it	.14	-.09	.71	.02	.72
	14. Humans were created to worship God.	-.08	-.03	.68	-.35	.73
Understanding spiritual discipline	10. Heaven is a beautiful and joyful place.	.21	-.13	.02	-.60	.67
	15. The Bible is the book about God.	.28	-.03	.22	-.56	.82
	17. Church is where we learn about God.	.19	-.15	.09	-.55	.64
	Eigenvalue	15.41	1.56	1.06	.89	
	% of Variance	60.51	4.95	3.08	2.33	
	Total variance	60.51	65.46	68.54	70.87	

## (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모형에 대하여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모델 평가 방법은  $\chi^2$ 값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145-147).  $\chi^2$ 값은 738.13(df=269,  $p<.001$ )로 나타났는데,  $\chi^2$ 값은 자료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 증분적합지수 TLI와 CFI 그리고 절대 적합지수 RMR, G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적합도 지수의 값은 RMR=.02, GFI=.80, TLI=.89, CFI=.90, RMSEA=.09로 일부 계수가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지수를 확인하여 값이 높게 나타난 'e20<->e21'(21.18)에 해당하는 문항의 의미가 유사함(33번 문항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36번 문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죄다)을 확인 후 공분산으로 연결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는 측정변수 간 상관간차가 높게 나타난 경우, 측정변수들이 고유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기에 측정오차 간 상관을 부여할 수 있다는 Kline의 제안(2019: 384)을 따름이다. 수정 후의 적합도 지수의 값은  $\chi^2=705.59$ (df=268,  $p<.001$ ), RMR=.02, GFI=.81, TLI=.90, CFI=.91, RMSEA=.09로 대부분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 지수는 Table 3에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Figure 1에 제시되었다.

Table 3. 모형적합도

Model	$\chi^2$	df	RMR	GFI	TLI	CFI	RMSEA
Original	738.13	269	.02	.80	.89	.90	.09
Modified	705.59	268	.02	.81	.90	.91	.09
Cut-off			<.05		>.90		.6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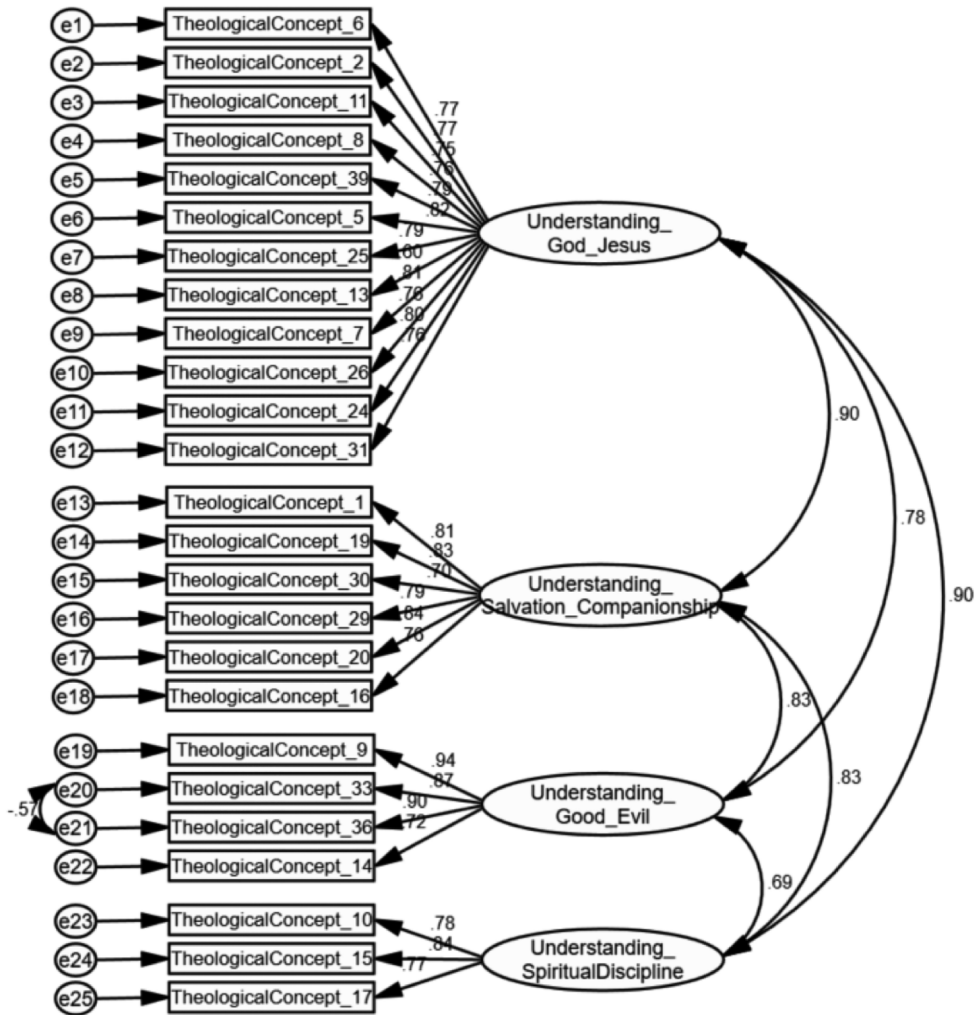


Figure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3) 집중타당도

집중타당도는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 정도를 의미한다. Table 4에 제시된 집중타당도 검증의 모든 지표는 표준화 계수 .50 이상, 평균분산추출(AVE) 지수 .50 이상, 개념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지수 .70 이상이라는 기준치(우종필, 2022: 164)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모든 경로가 .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집중타당도

Factor	Item	Estimate		S.E.	C.R.	AVE	Construct Reliability
		B	$\beta$				
Understanding God & Jesus	Theological Concept_31	1.00	.77			.90	.99
	Theological Concept_24	1.09	.80	.08	13.13***		
	Theological Concept_26	.87	.77	.07	12.38***		
	Theological Concept_7	1.00	.81	.07	13.30***		
	Theological Concept_13	.74	.60	.08	9.29***		
	Theological Concept_25	.86	.79	.07	12.89***		
	Theological Concept_5	.92	.82	.07	13.53***		
	Theological Concept_39	.98	.79	.08	12.94***		
	Theological Concept_8	.74	.76	.06	12.34***		
	Theological Concept_11	.85	.75	.07	12.12***		
	Theological Concept_2	.98	.78	.08	12.57***		
Understanding salvation & companionship	Theological Concept_16	1.00	.76			.88	.98
	Theological Concept_20	1.20	.84	.09	13.39***		
	Theological Concept_29	1.18	.79	.09	12.53***		
	Theological Concept_30	1.21	.70	.11	10.83***		
	Theological Concept_19	1.40	.83	.11	13.25***		
Understanding good & evil	Theological Concept_14	1.00	.72			.91	.98
	Theological Concept_36	1.37	.90	.10	13.53***		
	Theological Concept_33	1.22	.87	.09	12.96***		
Understanding spiritual discipline	Theological Concept_9	1.35	.94	.09	14.29***	.92	.97
	Theological Concept_17	1.00	.77				
	Theological Concept_15	1.02	.84	.08	13.28***		
	Theological Concept_10	1.05	.78	.09	12.22***		

\*\*\* $p < .001$

(4) 판별타당도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요인 1)’와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요인 2)’의 상관계수는 .82( $p < .01$ ),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선과 악에 대한 이해(요인 3)’의 상관계수는 .77( $p < .01$ ),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요인 4)’의 상관계수는 .80( $p < .01$ )로 나타났다. 또한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와 ‘선과 악에 대한 이해’의 상관계수는 .79( $p < .01$ ),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와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의 상관계수는 .71( $p < .01$ ), ‘선과 악에 대한 이해’와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의 상관계수는 .66( $p < .01$ )로 나타났으며, 모든 하위요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수의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큰 경우 입증될 수 있는데(우종필, 2022: 169), 본 연구에서 모든 잠재변수의 AVE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었다.

Table 5. 판별타당도

	Factor 1	Factor 2	Factor 3	AVE
Factor 1				.90
Factor 2	.82**			.88
Factor 3	.77**	.79**		.91
Factor 4	.80**	.71**	.66**	.92

\*\* $p < .01$

3.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4개 요인 25개 문항의 내적합치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Cronbach’s  $\alpha$  값은 1요인 .94, 2요인 .90, 3요인 .91, 4요인 .84, 그리고 전체는 .97로 나타났다.

Table 6. 신뢰도

	Items	Cronbach’s $\alpha$
Factor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	.94
Factor 2	13, 14, 15, 16, 17, 18	.90
Factor 3	19, 20, 21, 22	.91
Factor 4	23, 24, 25	.84
Total	1-25	.97

\* Final Item number

#### 4. 최종 문항

이상에서 제시한 과정과 결과를 통해 도출된 유아용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는 4요인, 25문항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Table 7에도 제시되었다: 요인 1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1.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 2.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3.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4.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다; 5. 하나님은 모든 사람(부자나 가난한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신다; 6. 하나님의 자녀는 친구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7. 하나님은 산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다; 8.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셨다; 9.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0.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11. 예수님은 기적(병 고침, 사고 예방)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12.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요인 2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 13.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계신다; 14.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15. 하나님은 내가 유치원/어린이집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16.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다; 17.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18.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요인 3 선과 악에 대한 이해- 19.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20.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21.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죄다; 22.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요인 4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 23. 천국(하늘나라)은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다; 24.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25.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곳이다.

Table 7. 최종 요인 및 문항

Factor	Item
Understanding God & Jesus	1. God can heal a sick person.
	2. God keeps his promises.
	3. God is good and loving.
	4. A church is a place to praise and worship God.
	5. God wants all people (the rich and poor, people of all colors) to believe in Jesus.
	6. Children of God should lov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7. God made the mountains and the sea.
	8. Jesus helped the poor and needy.
	9.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10. The church is a place where people who love God gather.
	11. Jesus does miracles (healing illnesses, preventing accidents).
	12. God sent Jesus to forgive everyone's sins.

	13. God is not visible, but He is real.
	14. Someday, Jesus will come back to Earth.
Understanding salvation & companionship	15. God is always with me, even when I am in the kindergarten or child-care center.
	16. Jesus died on the cross and came alive again.
	17. You can go to heaven if you believe in Jesus.
	18. Jesus can help me.
Understanding good & evil	19. God hates sin.
	20. When we choose to sin, Jesus is sad.
	21. Sin is doing what I want and not caring what God thinks about it
	22. Humans were created to worship God.
Understanding spiritual discipline	23. Heaven is a beautiful and joyful place.
	24. The Bible is the book about God.
	25. Church is where we learn about God.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학적 개념을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교리에 대한 유아의 이해와 신념’으로 정의하고 수행되었다. 측정도구 개발에 필요한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 유아 신학적 개념을 측정함에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 ‘선과 악에 대한 이해’,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라는 하위요인과 이에 해당하는 25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다. 이하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측정도구의 구성 및 타당화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측정도구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하위요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여기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산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기적을(병 고침, 사고 예방)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등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문항이 포함된다. 이 요인은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설명하는 가장 많은 문항을 포함하고 가장 큰 변량을 설명하기에 중요도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유아의 신학적 개념에 대해 연구했던 기독교교육자 대부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개념을 이 시기에 배워야 할 중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권기수, 2013; 이경우·이혜상, 1988; Beers, 1986; Lifeway; McQuitty, 2008). 유아 신앙에 관하여 전문가들과의 면담 결과 중 중요도가 높은 내용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기,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아버지임을 고백하기,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인식하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고백하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김성원,



2022).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학적 개념 이해가 다양하게 포함되었던 이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유아 신학적 개념의 두 번째 하위요인은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로 명명되었으며, 여기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이 요인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사후세계 그리고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현재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경우와 이해상(1988)은 ‘죄와 죄사함’을 ‘하나님’, ‘예수님’과 별도의 구성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예수님’ 개념 중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와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포함되어 있고, ‘죄와 죄사함’ 개념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잘못을 위해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어린이는 죄를 짓은 것(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할 수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와 같이 구원이 별도의 요인으로 구별되지는 않지만 신학적 개념을 제시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 등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김기수, 1993 ; Anthony, 2001 ; Beers, 1986 ; Trent, Osborne, & Brune, 2000: 120)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나 예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개념은 별도의 요인으로 구별하여 제시되지는 않으나, 유아기에 알아야 할 개념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Beers(1986)가 ‘예수님’ 개념에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Jesus is always with me)’와 ‘예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하도록 도우신다(Jesus can help me do hard things)’의 문항을, 이경우와 이해상(1988)이 ‘예수님’ 개념에 ‘예수님은 내가 어려운 일을 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다’를 제시한 것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 신학적 개념의 세 번째 하위요인은 ‘선과 악에 대한 이해’이며, 여기에는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죄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등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죄에 관련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교육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유아기 신앙의 특성을 파악한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 중 하나는 신학적 개념의 이해였고, 여기에는 하나님, 예수님·구원, 선악의 분별, 기타가 포함되어 있었다(김성원, 2020a). 선악의 기준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유아기는 삶을 살아가는 규칙과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배워가는 시기라고 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의 뜻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에 따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길 기대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Self(1986) 역시 4-5세 유아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며 유아의 양심은 자신에 대한 옳고 그름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도 작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유아는 불순

종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경우와 이해상(1988)은 유아기 신학적 개념으로 '죄와 죄사함'에 대한 개념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죄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과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어린이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불친절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등을 죄 또는 죄사함에 관련된 개념으로 제시된 바 있다. 유아기에 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발견과 연구자들의 제안은 본 연구의 발견과 부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마지막 하위요인은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이며 여기에는 '천국(하늘나라)은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곳이다'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요인에 포함되는 문항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료와 장소 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의 속성을 나타냄이다.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가 신학적 개념에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나, Beers(1986)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The Bible tells about God)'와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곳이다(Church is a place where we learn about God)'이라는 본 연구의 문항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5-6세가 알아야 할 신학적 개념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경우와 이해상(1988) 역시 '성경' 개념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린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를 포함시켰다. 유사하게 Anthony(2001)가 4-5세를 위한 영적 진리에 '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다(I can learn about God and Jesus in God's Word-the Bible)'를 포함시킨 것을 본 연구의 발견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유아 신학적 개념의 내용은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받거나 연구자들이 제안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측정도구의 타당화와 관련하여 논의하면,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4개의 구성요인은 70% 이상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60% 이상의 요인 적재량이 나타나는 경우 요인의 설명력은 넉넉하다고 보기에(노경섭, 2019: 159)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적합도 지수 RMR, TLI, CFI가 기준치를 상회함을 확인하여 본 측정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요인부하량과 유의도, 평균분산추출 및 개념신뢰도 지수를 확인하여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 제곱과 평균분산추출 지수를 비교하여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여 각 하위요인 및 전체 신뢰도 값이 모두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

라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무리 없이 측정하는 일은 수월한 과제가 아닌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요인 구성 및 그에 해당하는 예비문항 개발, 내용 타당도 검증, 예비 조사, 본 조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사의 절차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였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설문자료 중 100부를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에 중복적으로 사용한 점과 모형적합도 지수 중 GFI와 RMSEA가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주일학교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유아의 신앙을 평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교사 평정용 측정도구 개발 시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 평정 자료를 활용하여 공인타당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본 연구의 결과가 유아 신앙 확인의 지표, 유치부 교육 방향 및 실제의 적절성 판단 기준, 교육과정 구성의 디딤돌 등으로 활용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가 유아 신앙에 관한 후속연구에서 활용되고 유아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신앙 교육의 지표로써 활용되어 성경적·발달적으로 건강한 사역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고은님 (2008). **유아를 위한 성경에 기초한 교회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고은님 (2010). 유아를 위한 교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15(6), 189-212.
- 권기수 (2013). **유아의 기독교 개념의 측정 및 발달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 김민정 (2019). **영유아가 인식하는 하나님 개념과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성원 (1999). **유아의 연령과 부모의 신앙교육 정도가 유아의 신학적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성원 (2020a). 유아 신앙 형성에 관한 탐색적 질적 연구: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인식한 유아 신앙. **신학과 실천**, 68, 411-449.
- 김성원 (2020b). 유아가 인식하는 신앙에 관한 질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3, 283-315.
- 김성원 (2022). 유아기 신앙 특성 및 요인에 관한 혼합연구. **기독교교육논총**, 70, 175-206.
-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경섭 (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개정증보판)**. 서울: 한빛 아카데미.
- 서원진·이수민·김미리혜·김제중 (2018). 탐색적 요인분석 연구의 현황과 제언: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9(1), 177-193.
- 서철원 (2018). **서철원 박사 교의신학1: 신학서론**. 서울: 쿤란출판사.
- 송영란 (2005). **유아의 신앙발달과 친사회적행동 발달 증진을 위한 성경동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송지섭 (2022). 신천지에 대처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복음과 실천신학**, 65, 73-100.
- 양금희 (2011). **기독교 유아·아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오영희·정미 (2009). 성경 이야기 극화활동이 유아의 신앙발달과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문논총**, 26, 123-149.
- 우종필 (202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개정판)**. 서울: 한나래.
- 이경우·이혜상 (1988). **유아를 위한 기독교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 이승구·강웅산 역 (2009). **조직신학 서론**. Van Til, C. (2007).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고양: 크리스찬출판사.
- 이현숙·장승민·신혜숙·김수진·전경희 역 (2019). **구조방정식 모형 원리와 적용**.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서울: 학지사.
- 이혜정·김미경 (2010). 창조 요소에 기초한 명화 감상이 유아의 신앙 발달에 미치는 효과. **신앙과 학문**, 15(2), 153-175.

- 주연수 (2019). 영·유아기 영성함양을 위한 기독교적 형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58, 243-283.
- Anthony, M. (2001). Childhood education. In M. J. Anthony (Ed.). *Introducing Christian Education: Foundation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p. 205-216).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Beers, V. G. (1986). Teaching theological concepts to children. In R. E. Clark, J. Brubaker & R. B. Zuck (Ed.)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pp. 363-379). Chicago: Moody Press.
- Cunningham, S. M. (1992). The Christian education of children. In M. J. Anthony (Ed.). *Foundations of Ministry* (pp. 137-158). Wheaton, IL: Victor Books.
- de Roos, S. A. (2006). Young children's God concepts: Influences of attachment and religious socialization in a family and school context. *Religious Education*, 101(1), 84-103.
- Dickie, J. R., Eshleman, A. K., Merasco, D. M., Shepard, A., Vander Wilt, M. & Johnson, M. (1997).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images of God.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1), 25-43.
- Erickson, M. J. (2013). *Christian Theology* (3rd e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Estep, Jr. J. R., Anthony, M. J. & Allison, G. R. (2008).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B & H Academic.
- Fokkema, M. & Greiff, S. (2017). How performing PCA and CFA on the same data equals trouble: Overfitting in the assessment of internal structure and some editorial thoughts on it.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33, 399-402.
- Härle, W. (2012). *Outline of Christian Doctrine: An Evangelical Dogmatic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LifeWay. *Levels of Biblical Learning*.
- Lorenzo-Seva1, L. (2022). SOLOMON: A method for splitting a sample into equivalent subsamples in factor analysis. *Behavior Research Methods*, 54, 2665-2677.
- McQuitty, M. (2008). Teaching preschoolers. In W. R. Yount (Ed.).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2nd ed.) (pp. 285-302).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 Self, M. M. (1986). Understanding fours and fives. In R. E. Clark, J. Brubaker & R. B. Zuck (Ed.)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pp. 109-124). Chicago: Moody Press.
- Tamminen, K. (1991). *Religious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Youth: A Empirical Study*. Helsinki: Suomalainen Tiedekatemia.
- Trent, J., Osborne, R. & Bruner, K. (2000). *Spiritual Growth of Children*. Wheaton: Tyndale House Publisher.

#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for Measuring Theological Concepts of Young Children

김성원 (총신대학교)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의 신학적 개념을 확인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측정도구 개발의 절차는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토대로 구성요인을 결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59개의 예비문항 개발하여 내용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8명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내용타당도 검사를 통해 39개 문항을 추출한 후 2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부모 평정을 통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에서 일부 문항의 표현을 수정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421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40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탐색적 요인분석에 277부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에 229부를 사용하였다. JAMOVI 2.3, SPSS 22, 그리고 AMOS 22를 사용하여 평행선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포함하는 개념타당도 분석 및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를 사용한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최종 추출된 요인 및 문항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해당하는 12문항, '구원과 동행의 삶에 대한 이해'에 해당하는 6문항, '선과 악에 대한 이해'에 해당하는 4문항, 그리고 '영적 훈련에 대한 이해'에 해당하는 3문항. 본 측정도구는 유아의 신앙을 확인하는 자료로써 기독교 유아교육 분야의 연구와 사역에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유아, 신학적 개념, 측정도구 개발, 측정도구 타당화